https://namu.sdm.g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식지
Nature and Natural History

2026 여름호 제89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자연과 자연사

발행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편집 | 학예연구팀 심예진 발행일 | 2026. 6. 24.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전화 | (02)330-8899 팩스 | (02)330-1736

02 | 전시물 소개
04 | 전문가 기고
08 | 교육
10 | 특별전시
11 | 주민참여전시
12 | 박물관 행사
14 | 어린이코너
15 | 새소식
16 | 관람안내





01 전시물 소개

멸망한 제국의 후예(양서류와 파충류의 위대한 생존서사)

이상철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모든 생물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손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이처럼 생명체라면 누구나 지닌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세력이 미치는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이다. 즉, 영역 확장을 향한 본능이 그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태초의 지구는 온통 물의 세계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육지라는 공간이 모습을 드러내고 점차 넓어지자, 수많은 생명체는 미지의 땅을 동경하며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육지는 물속과는 완전히 다른 가혹한 환경이었다. 대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육지 환경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적응이 필요했고, 이 과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치열한 각고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 극한의 시도와 실패 끝에, 마침내 최초로 육상 상륙에 성공한 주인공들이 등장했으니, 이들이 바로 '양서류'이다. 비록 다소 불완전한 형태였지만 육지에 첫발을 내디딘 양서류들은 지구 전체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적응의 불완전성에 의한 한계로 오늘날까지도 물가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운명으로 남았지만, '최초의 개척자'라는 그들의 영광은 결코 퇴색될 수 없다. 그 첫걸음은 실로 엄청난 도약이었다.

양서류가 닦아놓은 위대한 업적을 발판 삼아, 진화의 다음 단계에서는 마침내 육상 환경의 완전체가 출현하게 된다. 지구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동물, 바로 '파충류'다. 파충류는 육상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했고, 명실상부한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곳이 그들의 영토였다. 우주로부터 찾아온 거대한 대멸종의 재앙이 지구를 뒤흔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도롱뇽과 개구리 등이 속한 양서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00종, 한반도에는 20여 종이 살아가고 있다. 모든 육상 척추동물의 시조인 이들은 대중에게 꽤 이중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청개구리처럼 귀여운 매력을 뽐내는 종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어둡고 음침한 동물로 묘사되곤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양서류는 무족영원류, 도롱뇽류, 개구리류의 세 그룹으로 나뉘며, 온대 기후인 한반도에는 도롱뇽과 개구리 종류가 서식한다. 이들이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라는 위대한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피부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에 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보호막 덕분에 양서류는 피부 호흡을 유지하고 체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비로소 대망의 육상 시대를 열어젖히며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거북과 뱀, 도마뱀 등으로 대표되는 파충류는 전 세계에 약 7,000종, 한반도에 30여 종이 서식한다. 파충류는 역사적으로 선량함과는 거리가 먼, 사탄이나 절대 악의 상징으로 자주 쓰여왔다. 흔히 파충류를 떠올릴 때 냉혹함, 비열함, 치졸함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겹쳐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가진 압도적인 경이로움과 호기심에 대한 반작용일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악어, 거북, 유린류(뱀·도마뱀), 그리고 과거 지구를 주름잡던 공룡의 직계 후손인 옛도마뱀까지 모두 네 그룹의 파충류가 존재한다. 이 중 한반도에는 거북과 뱀 종류가 토종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양서류가 최초로 육상에 발을 디딘 개척자라면, 파충류는 육상 환경에 완벽히 적응함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장악한 최종 수혜자다. 물론 양서류의 미완성작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세대의 업적을 온전히 누리며 진면목을 발휘한 생물군이 파충류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파충류가 마주한 육지는 양서류의 눈에 비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펼쳐졌다. 불완전했던 전 세대의 육상 적응 방식은 혁신적인 신기술로 대치되었는데, 혁명과도 같았던 완벽한 적응의 실체는 바로 피부 자체를 물리적으로 변모시키는 파격적인

적응 진화였다. 탄탄한 비늘 갑옷으로 무장한 이 새로운 주자는, 이로써 육상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사실 양서·파충류는 오랫동안 인간의 진정한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변방의 생물이었다.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친숙한 동물이었음에도, 과거 이들의 용도는 계절에 따라 즐기던 별미(주전부리)나 단방약(민간요법)의 재료 같은 지극히 단순한 목적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양서·파충류는 생태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생물 그룹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들의 숨은 가치가 새롭게 밝혀진 덕분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양서·파충류가 가진 가장 독보적인 가치는 바로 '지표성(지표 생물)'이다. 지표 생물이란 특정 생물의 서식 여부나 행동 변화를 통해 주변 환경의 오염 수준이나 생태계의 건강도 등을 알려주는 '환경의 척도'를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력을 지닌 '기후변화 지표종' 등의 발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양서·파충류가 환경 변화에 가장 예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생물군으로 보고되면서 마침내 중요한 생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

개구리를 잡아 본 일이 있는가? 개구리는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며 축축하다. 어렵사리 겨우 잡아 올리면 볼을 잔뜩 부풀리며 불편한 소리를 내뱉는다. 뱀을 가까이에서 본 일은 있는가? 의외로 매끈매끈하고 깔끔하며, 알다시피 기다란 몸을 지니고 있다. 용기를 내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라진 긴 혀를 넬름거리기 일쑤다.

왜 그럴까? 이들은 왜 축축하고 또 그토록 기다란 것일까? 모든 생물은 저마다 고유한 외형과 행동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마다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 자연의 모습에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모두 그래야만 하는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사연을 품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생물을 바라볼 때는 이름이나 분류군 같은 교과서적인 정보에만 연연하지 말자. 우리가 진정 궁금해해야 할 것은 그들의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녹아 있는 생존의 역사다.

수많은 생물이 서로 어우러져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장 건강한 생태계다. 안정되고 평온한 생태계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언제나 생물들을 보듬고 안아줄 것 같던 이 생태계가, 지금 수많은 요인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다름 아닌 생태계의 안정성이다. 그리고 그 안정성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의 어울림을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다.

특정 생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는 언제나 호불호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 안에서 그들이 지닌 존재의 이유에는 결코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 생태계를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은 결국 그 생태계의 본질적 요소인 생물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행동, 그 안에 녹아 있는 살아온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관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대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요구되고 있다. 생물들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정보이자 깊은 공감대이기 때문이다.

개구리와 뱀을 비롯하여 자연 속의 수많은 생물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 소개

이상철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강릉대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 분야는 양서·파충류의 분류 및 생태이다.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제7대 및 제8대 학회장으로서 국내 양서·파충류 연구의 기틀을 다지고 학술적 성장을 견인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바로미터가 되는 양서·파충류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힘쓰고 있다. 자연 속 생물다양성의 온전한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꿈꾸며, 꾸준히 연구와 강의,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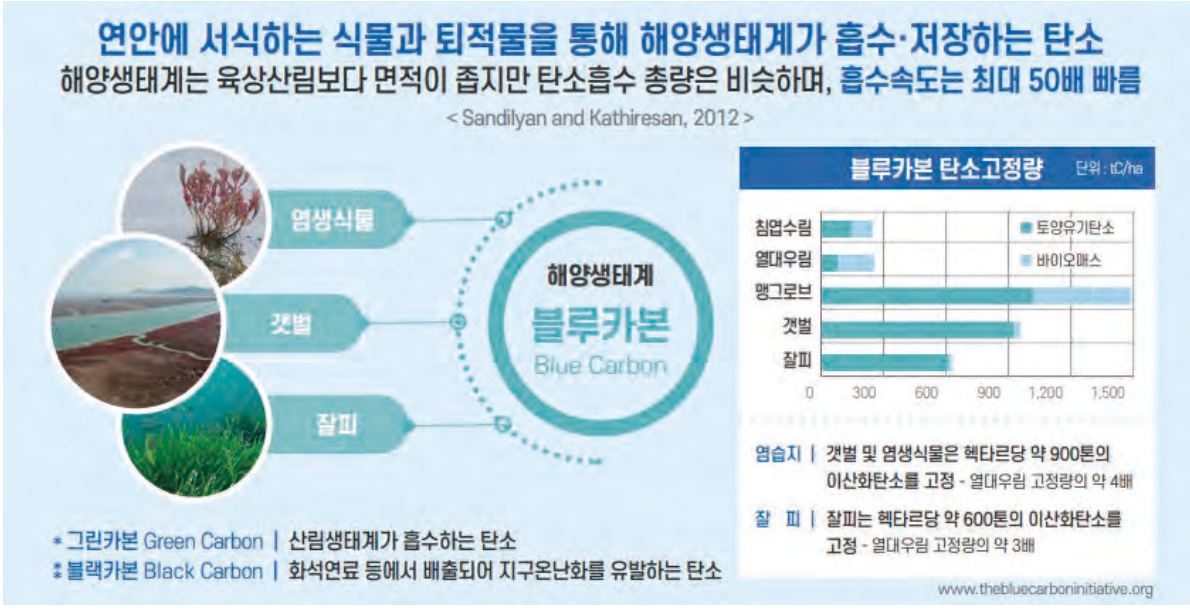
02 전문가 기고

블루카본 이야기 제1편

갯벌의 풀 한 포기에도 탄소가 머뭅니다

안성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전임연구원)

기후변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숲을 먼저 떠올립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를 저장한다는 사실은 이제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까이에도, 조용히 탄소를 붙잡아 두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바다와 연안 생태계가 흡수해 저장한 탄소를 '블루카본(Blue Carbon)'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맹그로브 숲, 염습지, 잘피밭을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 주목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갯벌과 염생식물, 해조류까지 함께 주목해 왔습니다.



▲ 해양생태계 블루카본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최근에는 블루카본의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갯벌과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 등이 포함된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가 통과되면서, 블루카본의 외연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기존 블루카본을 넘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연안 생태계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을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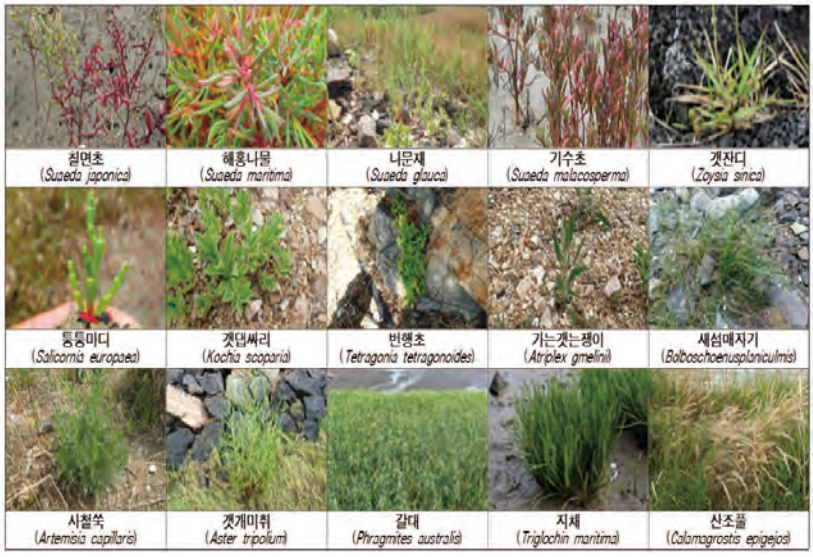
이처럼 블루카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까이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은 여전히 염생식물입니다. 염생식물은 말 그대로 소금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일반 식물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환경

이지만, 염생식물은 바닷물의 드나듦과 높은 염분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갯벌과 염습지, 하구와 해안 저지대처럼 물이 들고 나는 곳에서 주로 자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소박한 풀처럼 보이지만, 이 식물들은 해안 생태계를 지키고 탄소를 저장하는 데 중요한 몫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염생식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해 연안 12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는 총 95종의 염생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소개되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저서 '우리나라 바다꽃식물'을 통해 염생식물 165종을 보고했습니다. 조사 시기와 분류 기준에 따라 숫자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연안에 매우 다양한 염생식물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종으로는 칠면초, 나문재, 해홍나물, 퉁퉁마디(함초), 갯질경, 지채, 천일사초, 갈대 등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바다꽃식물-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저서



▲ 국내 주요 염생식물

이 식물들은 우리나라 해안 어디에서나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하구, 남해안의 만입부, 일부 동해안 습지처럼 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주로 분포하며, 염분의 정도와 물이 잠기는 시간, 토양의 성질에 따라 사는 식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칠면초나 나문재처럼 붉게 물드는 식물은 갯벌 가까운 곳에서 눈에 띄고, 갈대나 사초류는 비교적 안정된 염습지 가장자리에서 큰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안에서 식물의 키와 색, 자라는 높이가 조금씩 다른 이유도 이런 환경 차이와 이어져 있습니다.

염생식물이 블루카본의 주인공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탄소를 흡수하는 방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염생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잎과 줄기, 뿌리에 탄소를 저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숲의 식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염생식물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뿌리 주변의 흙과 진흙을 붙잡고, 바닷물이 드나들 때 함께 들어온 미세한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이도록 도와 탄소가 땅속에도 차곡차곡 저장되게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염생식물의 큰 힘입니다. 숲에서는 나무가 잘 보이는 저장고라면, 염습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땅속이 더 큰 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염생식물이 자라는 갯벌에서는 식물체 자체에 저장된 탄소뿐 아니라, 식물 덕분에 진흙과 토양에 묻혀 남게 되는 탄소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염생식물은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인 동시에 "탄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염생식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여러 기관에서도 블루카본 염습지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염습지의 탄소저장 메커니즘과 탄소흡수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연구기관들도 연안습지의 탄소저장량과 복원 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의 관심은 "염생식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탄소량을 계산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염생식물 개체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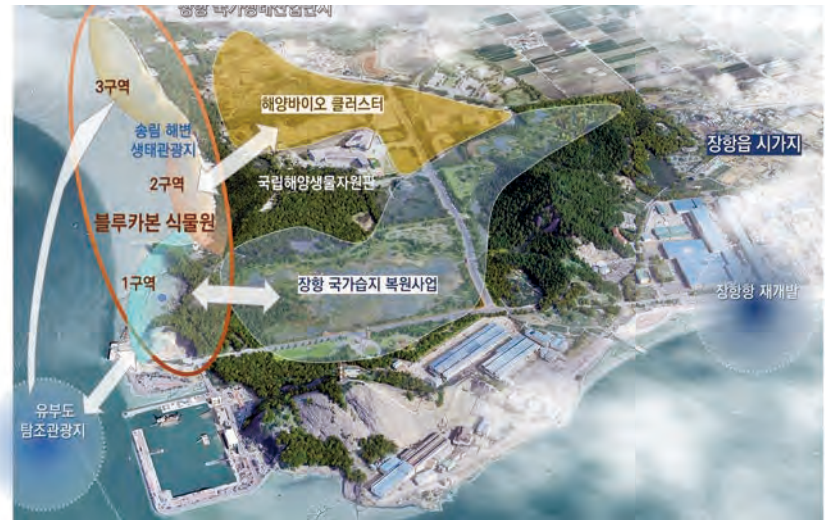
퇴적물 채집


시료분석

특히 2025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연구를 통해 염생식물, 해조류, 패류 등 55종의 탄소량 전환식을 도출하고, 이를 「블루카본 탄소흡수원 해양생물」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이 전환식은 식물의 길이나 무게처럼 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탄소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든 식입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실험실 분석이 필요했던 탄소량 정보를 앞으로는 현장에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2026년에는 염생식물의 계절과 생장 단계별로 생물과 퇴적물의 탄소저장량을 산정하여, 생물이 아닌 생태계로 확장된 블루카본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생물이 사는 생태계에서 얼마나 탄소를 저장하는가", "계절과 생장 단계에 따라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적이 이루어져야 국가 온실가스 통계와 탄소중립 정책에도 더 탄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염습지를 보전하고 되살리려는 복원 사업도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복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사업은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서천군의 경우, 장암·송림·옥남갯벌 일원에 블루카본 식물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2022년 유부도 갯벌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염생식물 복원이 단지 식물을 심는 일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생태복원, 지역의 자연교육과 생태관광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염생식물의 가치는 탄소 저장량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식물들은 해안의 흙을 붙잡아 침식을 줄이고, 작은 생물들에게 먹이와 숨을 곳을 제공하며, 갯벌과 습지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 염생식물을



▲ 서천군 블루카본 식물원 입지(사진제공 = 서천군청)

지키는 일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해안 생태계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블루카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가를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염생식물을 그냥 "갯벌에 나는 풀" 정도로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그 작은 풀 한 포기가 바닷가의 흙을 붙잡고 탄소를 머금고 생명을 키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안의 칠면초, 갈대, 해홍나물, 퉁퉁마디 같은 식물들은 풍경을 이루는 배경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곁의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블루카본을 이야기할 때 염생식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염생식물이 살고 있고, 그 분포와 기능, 탄소저장량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탄소량 전환식이 만들어지고, 드론이나 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지 기술을 앞세워 염생식물 핵심 서식지의 보전·복원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숲을 가꾸는 일만큼이나 갯벌과 염습지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바닷가의 작은 식물들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맞서는 가장 조용하고도 든든한 힘일지 모릅니다.

필자 소개

안성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전임연구원)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경대를 거쳐 현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전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로 연안 갯벌, 염습지, 양식장 등에서 탄소순환 관련 생지화학 프로세스 연구를 진행하였고, 자원관에서 신규 블루카본 발굴 및 탄소순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 관련 주제로 28편의 연구논문을 주저자·공동저자로 참여하였고, '블루카본 탄소흡수원 해양생물' 3권과 영문판의 공동저자로 활동하였다.



03 교육

7월 박물관투어

- **교육대상 :** 유치부 6세~초등학교 6학년
- **교육내용 :** 전시장 투어 및 학습지 풀이 등
- **모집일정 :** 2026. 6. 15.(월) 10시~마감 시
- **교육일정 :** 2026. 7. 11.(토)~7. 26.(일)
- **교육시간 :** 120분(유치부 90분)
  [10:00~12:00, 13:00~15:00]
- **장　　소 :** 5교육실 및 전시장
- **수 강 료 :** 16,000원(1인)
  - 일반 연간회원 11,000원
  - 연간 구민회원 10,000원

※ 문의 02-330-8873
※ 8월 박물관투어 접수 : 2026. 7. 15.(수) 예정

7~8월 2026년 여름학기 박물관 교실

- **운영시기 :** 2026. 7. 25.(토)~8. 30.(일)
- **교육대상 :** 유치부(2020년 1월1일생 이후) 및 초등 1~6학년
- **교육내용 :** '갑옷 입은 연체동물' 등 18과목
- **모집일정 :** 2026. 6. 29.(월) 오전 10시부터~수강일 2일 전
  - 연간회원 우선접수(정원의 30%)
    2026. 6. 29.(월) 오전 10시 ~ 수강일 2일 전
  - 연간회원 및 일반회원
    2026. 7. 1.(수) 오전 10시 ~ 수강일 2일
- **교육일정 :** 2026. 7. 25.(토) ~ 8. 30.(일)
- **교육시간 :** 90분
- **장　　소 :** 박물관 제1, 2, 3교육실 (지하 B1층)
- **수 강 료 :** 16,000원/인
  (연간회원 13,000원/인, 연간구민회원 11,000원)

※ 문의 02-330-8868

7월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 **교육대상 :** 초등학생 포함 가족(2-4명/가족)
- **교육내용 :**
  - 현미경 수업 : 현미경 조작 실습 및 프레파라트 제작
  - 망원경 수업 : 천체관측 기초 및 망원경 조작 실습
- **모집일정 :** 2026. 7. 6.(월) 11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6. 7. 18.(토)
- **교육시간 :** 2시간[14~16시, 19~21시]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미나실(2층)
- **수 강 료 :** 25,000원/가족

※ 문의 02-330-8863

8월 천체사진으로 담는 우주 - 여름철 별자리편

- **교육대상 :** 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10명 내외
- **교육내용 :**
  - 여름철 별자리 소개 및 촬영하는 방법 교육
  -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안내 및 촬영 방법 교육
- **모집일정 :** 2026. 8. 3.(월) 11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6. 8. 6.(목)
- **교육시간 :** 19시 30분~21시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주차장
- **수 강 료 :** 10,000원/인

※ 문의 02-330-8863



6~8월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강연

- **교육대상 :** 청소년 및 성인 60명
- **모집일정 :** 강연 2주 전 화요일 10시~ 마감 시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

일시	제목	강사
2026. 6. 18.(목) 19:00 ~21:00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화 박사 (극지연구소)
2026. 7. 23.(목) 19:00 ~21:00	**나는 달로 출근한다**	정민섭 박사 (한국천문연구원)
2026.7. 30.(목) 19:00~21:00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	임정은 박사 (국립생태원)

※ 문의 02-330-8871

7~8월

[과학강연] 여름방학 특강

- **교육대상 :**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 **모집일정 :** 2026. 7. 7.(화) 10시~마감 시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 일시 및 내용**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

일시	제목	강사
2026. 7. 18.(토) 14:00 ~16:00	**진화란 무엇인가?**	이상임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2026. 7. 25.(토) 14:00 ~16:00	**캄브리아기 바다부터 현재까지, 5억 년의 진화**	김지훈 박사 (극지연구소)
2026. 8. 2.(일) 14:00 ~16:00	**왜 음식은 맛있고 질병은 괴로운가? - 진화로 이해하는 인간 본성**	전중환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 문의 02-330-8871

8월

엄마랑 아빠랑 책이랑 친구하기



- **교육대상 :** 2020년생~2018년생 어린이를 포함한 15가족
- **모집일정 :** 2026. 7. 7.(화) 10시~마감 시
- **장　　소 :** [1~2강] 서대문자연사박물관 3층 북파크, [3강] 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 **수 강 료 :** 무료
- **교육 일시 및 내용**

일시	제목	시간	대상
2026. 8. 2.(일) 10:00 ~11:00	**다시 쓸 수 있어요!**	60분	1강 : 유아(2021~2020년생) 동반 15가족
2026. 8. 16.(일) 10:00 ~11:30	**플라스틱 행성, 지구**	90분	2강 : 초등 (2019~2018년생) 동반 15가족
2026. 8. 30.(일) 10:00 ~11:30	**땅속 탐험대**	90분	3강 : 초등 (2019~2018년생) 동반 15가족

※ 문의 02-330-8871

04

특별전시



2026년 제1차 특별전시

《무빙가든 MOVING GARDEN: 식물의 감각》

- **기　　간** : 2026. 6. 6.(토) ~ 2026. 10. 18.(일)
- **장　　소** : 1층 특별전시장

전시설명

식물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광수용체로 빛의 양과 방향 및 색깔을 감지하고, 파리 한 마리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덫을 닫는 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성 화학물질을 언어 삼아 곤충을 유인하거나 포식자에 맞서는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도 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식물의 능동적인 감각 세계를 탐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서 있는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세계를 감각하고 있는 식물의 놀라운 면모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5 주민참여전시



2026년 제2차 주민참여전시

《묵향에 스며든 계절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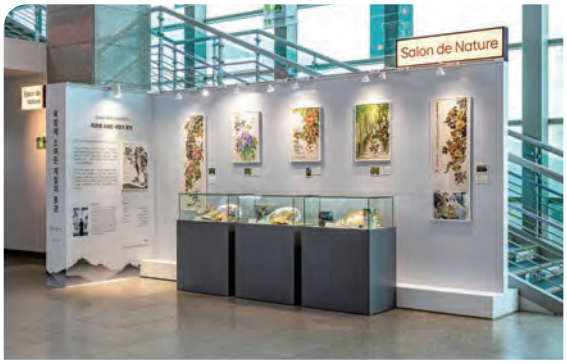
- **기　　간** : 2026. 6. 16.(화) ~ 10. 11.(일)
- **장　　소** : 1층 중앙홀, 살롱 드 네이처(Salon de nature)

전시설명

우리는 일상 속 자연을 얼마나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날마다 마주하는 세상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삶을 더욱 다채롭고 생기있게 물들입니다. 푸르른 여름의 생동감, 알록달록한 가을의 풍요로움,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작은 생명들까지.

이번 전시는 계절의 흐름 속 서대문의 풍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이웃들의 모습을 수묵 캘리그라피로 담아냈습니다. 작품 속에 스며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느껴보시고, 전시를 본 뒤에는 서대문의 길을 걸으며 주변의 동식물을 직접 발견하는 즐거움도 함께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작가 황준희









06

박물관 행사

2026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후기

5월 2일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맞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97명의 어린이들이 박물관 전시물을 주제로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그림 실력을 뽐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일 시 :** 2026. 5. 2.(토) 10:00 ~ 12:00 (2시간)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3층
- **작품주제 :** 박물관 전시물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상상을 더하여 그림 완성
- **참가인원 :** 초등학생 1~6학년 97명

행사사진






아트갤러리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작 30점을 박물관 아트갤러리에 1년간 전시합니다.

주말과학체험

주말과학체험은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관람객에게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체험을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 **장 소 :** 자연사박물관 1층 중앙홀
- **대 상 :** 관람객 누구나
- **모집방법 :** 현장 접수(선착순)
- **참가비 :** 무료

월	운영 일시	주제
6월	2026. 6. 6.(토) 9:00~17:00	'나도 고고학자' 등 5개 주제
7월	2026. 7. 4.(토) 9:00~16:00	'꿀벌을 지켜라' 등 3개 주제
	2026. 7. 18.(토) 9:00~17:00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 5개 주제
	2026. 7. 25.(토) 9:00~12:00	'멸종위기동물' 손거울, 핀버튼 만들기
8월	2026. 8. 1.(토) 9:00~16:00	'바다 유리를 아시나요' 등 3개 주제
	2026. 8. 15.(토) 9:00~17:00	'디폼블록 키링 만들기' 등 2개 주제
	2026. 8. 29.(토) 9:00~16:00	'몽글몽글 라바램프' 등 3개 주제

2026년 토종작물 순환 프로젝트 행사 후기

5월 9일, 토종작물과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 100여 명이 자연사박물관 1층 중앙홀에 모여 '토종작물 순환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박물관이 직접 모종으로 키운 우리나라 토종작물 5종(담배상추, 뿌리갓, 옥지기가지, 울릉초, 흰들깨)을 배부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이를 직접 재배한 뒤 채종한 씨앗 일부를 다시 박물관에 반납하는 순환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입니다.

"토종작물은 키우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참여자들의 소감처럼, 사라져가는 토종작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명의 순환을 직접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7 어린이 코너 (2026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인터뷰)

★ 본인이 그린 그림을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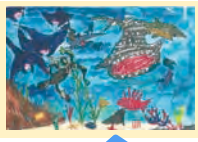
독도가 30년 후 지구온난화 때문에 열대 바다가 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족관에서 보는 흰동가리, 쏠배감팽 등등 여러 열대어 들이 있는 것은 좋지만 독도가 따뜻해 지는 건 슬퍼요. 그래서 넓고 푸른 바다를 위해 30년 후 제가 해양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장면입니다.



1~2학년부 금상 대표
이준우 (경기 행신초등학교 2학년)

★ 2026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자연을 좋아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자주 갑니다. 그런 멋진 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만 같았고 1등까지 해서 정말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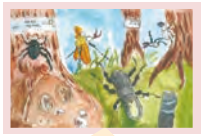




3~4학년부 금상 대표
이찬범 (서울 경기초등학교 3학년)

★ 본인이 그린 그림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곤충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살아갈 곳을 잃어가는 사슴풍뎅이들과 넓적사슴벌레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2026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즐거운 어린이날에 이렇게 뜻깊은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처음 참가한 대회라 두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응원해 주신 엄마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도전하는 즐거움과 노력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본인이 그린 그림을 소개해주세요.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을 생각하며 작품을 그렸습니다. 모두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실천을 이어가며 아름다운 바다와 건강한 생태계가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5~6 학년부 금상 대표
김소율 (인천 미송초등학교 6학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년 연속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입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2년 연속 금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양생물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그림에 담고자 했는데 그 마음을 인정 받은 것 같아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 길민주

08 새소식

자연을 담은 북큐레이션 "여름"

2026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3층 북파크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연을 담은 북큐레이션」을 선보입니다. 매월 자연, 환경, 생태와 관련된 주제 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읽을 수 있는 그림책, 도감, 에세이, 전문 서적 등 다양한 도서를 통해 자연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 제(예정)	일정
계절 도서	'여름' 주제 도서 20권	2026. 6. 1. ~ 8. 31.
자연·환경·생태 도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 '환경' 주제 도서 20권	2026. 6. 1. ~ 6. 30.
	국제 플라스틱 없는 날(7월 3일) 기념, '플라스틱' 주제 도서 20권	2026. 7. 1. ~ 7. 31.
	세계 코끼리의 날(8월 12일) 기념, '코끼리' 주제 도서 20권	2026. 8. 1. ~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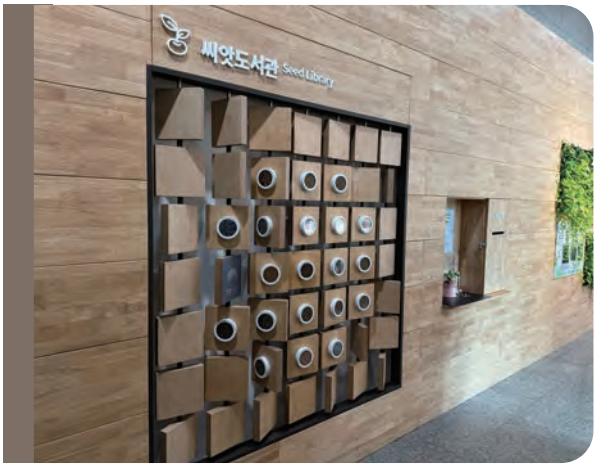


'여름' 주제 도서



환경의 날 기념 도서

토종씨앗도서관 운영



- 6월 : 정성콩 7월 : 담양배추 8월 : 뿌리갓
- **응모기간** : 매월 1일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 **추 첨 일**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추첨영상 유튜브 업로드 및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추첨인원** : 20명
  (씨앗과 함께 재배 및 채종 방법 동봉하여 우편발송)
- **반납방법** : 씨앗을 심어 기른 후 채종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납

※ 문의 : 02-330-8858

당첨자 확인

※ 박물관 1층 토종씨앗도서관에 응모해주세요. 매월 20명을 추첨하여 토종씨앗을 대출해드립니다. 씨앗을 잘 키워 채종하여 반납해주시면 토종씨앗 "우선대출권"을 드립니다!

09 관람안내

관람시간
- 3 ~ 10월(하절기) 평일 9:00 ~ 18:00 공휴일 9:00 ~ 19:00
- 11 ~ 2월(동절기) 평일 9:00 ~ 17:00 공휴일 9:00 ~ 18:00

입장 및 매표마감 : 폐관 1시간 전

휴관안내
-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관람안내
- 개인관람 : 예약 없음, 관람인원 및 시간제한 없음
- 단체관람 : 예약 필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단체관람안내)
- 전시장 음료반입 금지, 나무홀 취식가능(배달음식 금지)
- 무료관람 대상자 : 홈페이지 참고(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관람료)

전시해설안내
- 도슨트 전시해설 : 화 · 수 : 오전11시 / 목 · 금 : 오후2시
  주말 · 공휴일 : 오전 11시, 오후 2시
- 어린이도슨트 전시해설 : 주말, 공휴일, 방학 중 비정기적 운영
  ('홈페이지-관람안내-박물관일정표'에 보시면 어린이도슨트의 활동 시간과 활동코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슨트 박물관일정표

연간회원제
- 연간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입장, 교육프로그램 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하세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연간회원).

카카오톡채널안내
- 카카오톡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하고 소식을 받아 보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카카오톡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박물관 주차장 만차 시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11시30분 이후)

대중교통안내
- 지하철 신촌역(2호선) 4번 출구 - 마을버스 서대문 03번 환승
- 지하철 홍제역(3호선) 4번 출구 - 버스 7738번 환승
- 버스 110번, 163번, 7017번, 7720번, 7738번
-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문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02-360-8685)

순환 셔틀버스 시간표

주소 문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연희동)
- 대표전화 : 02-330-8899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